

죽을 때까지 아내만 돌본 남편

파킨슨병으로 투병중인 아내를 밤새워 간호한 70대 노인이 피로를 이기지 못해 지하철에서 숨졌다. 이 노인은 입원중인 아내 병간호를 위해 2주일째 나주 집에서 전남대 병원까지 매일 오가며 간호를 해왔다. 특히 노인은 간경화를 앓고 있어, 평소 극심한 피로를 느꼈지만 아내를 위해 주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9일 오전 9시10분께 지하철 도산역에서 이모(72)씨가 광주

지하철 객실 지지봉에 머리를 기댄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승객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이씨는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발견 당시 이씨의 눈과 얼굴 등은 노란 빛을 띠는 심한 황달 증상이 관찰됐다.

경찰은 이씨가 간경화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과로가 겹치면서 심장마비 등으로 인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말기 간경화 숨기고 투병 아내 간호 끝내 지하철 안에서 쓰러져 숨져

이씨는 사고 전날인 28일도 평소와 같이 밤샘 간호를 한 뒤, 29일 오전 8시20분께 전남대병원에서 나와 나주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 이씨는 항상 밤샘간호가 끝나면 지하철을 이용해 도산역에서 내린 뒤, 160번 버스를 타고 나주시 석현

동 집으로 귀가했다. 하지만 이씨는 의식을 잃어 목격자인 도산역에서 내리지 못했으며, 지하철이 종착역인 평동을 돌아 되돌아 오는 길에 도산역에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년 전부터 파킨슨 병에 걸려 고통받는

부인(65)의 곁을 지키며, 나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수발을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름 전부터는 부인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나빠져 전남대병원으로 입원하게 됐고, 이씨는 부인의 병간호를 위해 날마다 지하철과 버스를 번갈아 타며 병원 생활을 반복해왔다.

50년전 결혼해 경기도 등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아들 4명을 둔 이씨 부부는 오랜 시간 같이 함께 지내오며 부부의 정이 각별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씨는 30일로 잡힌 아내의 수술을 앞두고 밤새 아내 곁을 지키면서 극도로 긴장한데다 고령으로 끝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막내아들은 "주말에 본 아버지의 얼굴이 너무 험색하고 힘들어 보여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아버지는 어머니만을 걱정하셨다"면서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통곡했다.

/백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나원침 (8807) 김장두



캠서서 '열린 법정' 행했다.

지난 30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개최된 광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기석)의 '열린 법정'.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생, 재판 이해당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20여분 동안 실제 재판이 진행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쫓개기·면적 늘리기 꼼수 판치는 원룸

광주경찰, 주차장·옥상 불법 증축 건축주·건축사 무더기 적발

쫓개기나 허가면적 이상 늘리는 수법으로 원룸을 불법 증축·보수한 건축주와 건축사가 무더기로 입건됐다. 광주시가 관련 업무를 민간 단체인 광주시건축사협회에 위임한 뒤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건축사들의 '도덕적 불감증'까지 맞물려 원룸 불법 증축 사태가 만연해 있다는 점에서 전면 실태조사와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57)씨 등 건축주 87명은 지난 2010년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등에 원룸을 신축하면서 쫓개기,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허가면적 이상 증축하거나 가구수를 늘린 '원룸 쪽방'으로 보수한 혐의다.

또 건축사들은 불법 증축된 건축물이 행정기관에 신청된 것과 함께 시공된 것처럼 허위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광주시건축사협회가 지정하는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위조,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축법에 따라 전용면적 30㎡ 이하인 경우 세대당 0.5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수

익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장과 옥상 일부 공간을 불법 증축하거나 행정기관에 1가구로 건축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2~3가구로 분할 임대해 이익을 챙겼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특히 불법 쫓개기, 불법 용도변경 등을 통한 불법 건축물 난립은 설계에서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주와 건축사가 애당초 불법 개조를 전제해 뒤 건축물을 짓는데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지난 2010년 신축된 광주지역 원룸 364개소를 일일이 찾아 다니며 건축물 대장과 정밀 대조해 161곳에서 불법 증축 사실을 확인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근로자 작업증 잇따라 숨져

지난 30일 오후 1시50분께 영암군 삼호읍 한 중공업에서 근로자 이모(38)씨가 위에서 떨어진 선박 블록에 깔렸다.

이씨는 철관으로 된 선박 블록을 중앙비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이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목포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이씨가 높이 1m·세로 3m·가로 12m·무게 5t 정도의 철관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40분께 담양군 금성면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작업 중이던 김모(28)씨가 들과쇄기의 벨트에 몸이 끼어 숨졌다. 김씨는 과쇄기에 들을 넣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담양=정재근기자 jigg@

'임을 위한 행진곡' 지키자 네티즌들이 들고 나섰다

서명운동 돌입

국가보훈처의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 계획(광주일보 4월 25일자 6면)에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났다.

보훈처의 '임을 위한 행진곡' 대체 추모곡 선정 예산 철회를 비롯, 이 곡의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식순배치와 5·18 추모곡 지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 지키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다음 아고라 등에서 지난 28일부터 일부 네티즌들이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국가보훈처는 5·18 추모곡 대체 공모 예산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5·18 33주년 기념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한다'며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국가보훈처가 올해 5·18 33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신할 공식 추모곡을 별도

로 제작하려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원 네티즌의 수도 급속히 늘고 있다. 오는 18일까지 서명목표 수는 5만1800명.

네티즌들은 5·18 33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혈세를 낭비하는 무모한 행위보다 역사적 교훈·순수성 회복 등을 위해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불리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헌법수호'는 "사실상 5·18 추모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민통합과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 '박치기 썰매'는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마시다"라고 적었고, 네티즌 '윤승'은 "더 많이 듣고 불리어졌으면 합니다"라고 썼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 30일 5·18 33주년 기념식순배치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넣을지 말지 여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

"동물은 위자로 주체 안돼"

대법원 판결

애완견과 같은 동물 자체는 위자료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애완동물 주인 김모(25)씨가 "안락사한 애완동물 2마리에 대한 위자료를 소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가짜 경유 팔아 7억 부당이익

○순천경찰은 30일 등유가 혼합된 가짜 경유를 주유소에 공급하고 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정모(38)씨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순천지역 도 건설폐기물 업체에 경유에 60~70%가량의 등유를 혼합한 7억원 가량의 가짜 경유 총 30만ℓ를 공급한 혐의.

○나주에서 주유소를 하는 정씨는 건설폐기물 업체에 포크레인이 작업 도중 고장을 일으켜 정비비를 받는 과정에서 가짜 경유 주입이 고장의 원인으로 드러나면서 달이.

/순천=김은중기자 ejkim@

광주 범죄 증가... 절도범은 줄어

지난해 발생한 광주지역 범죄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광주시가 제작한 시정통계에 따르면 2012년 발생한 광주지역 범죄건수는 총 6만7272건으로 2011년(6만3675건)에 비해 5.6%(3597건) 늘었다. 범인 검거율은 2012년 75.5%로 전년도 74.3%보다 1.2% 포인트 증가했다.

2012년 발생한 범죄유형별로는 특별범죄가 3만157건(44.8%)으로 가장 많고, 절도범(1만2670건·18.8%), 폭력범(1만1594건·17.2%), 지능범(8963건·13.3%) 순이었다. 주요 범죄 유형 중 절도범은 2011년(1만3371건)과 비교해 줄어들어 눈길을 끌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since 1952 회갑의 해

중앙만 바라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지역발전은 지방신문이 선도합니다

서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중앙지는 누구 편입니까?
지방지는 우리 지역을 대변합니다.
지방지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한국지방신문협회
광주일보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